

필리핀 *Republic of the Philippines*

1 국가 개황

일 반	위 면 기 인 수	치 : 남중국해상 도서국 적 : 300천 km ² (한반도의 1.3배) 후 : 고온다습한 아열대성 구 : 96백만 명 ('11) 도 : Manila (11.4백만 명)
	민 언 종	족 : 말레이족, 네그리토족, 인도네시아족, 중국, 메스티조 어 : 타갈로그어, 영어 (공용어), 기타 지방어 교 : 가톨릭(83%), 기독교(12%), 이슬람교(5%)
정 치	독 립 일	: 1946. 7. 4. (미국)
	정 치 체 제	: 대통령중심제
치	국 가 원 수	: Benigno Simeon Cojuangco Aquino III 대통령
	의 회	: 양원제 (상원 24석, 하원 278석)
경 제	주 요 정 당	: 자유당 (LP), Lakas-Kampi-CMD, 국민연합당 (NPC)
	국제기구가입	: UN, IMF, WTO, APEC, IBRD, ADB, ASEAN 등
화 폐 단 위	회 계 연 도	: 1. 1. ~ 12. 31.
	산 업 구 조	: ('11) 서비스업 54.4%, 제조업 33.3%, 농업 12.3%
	주 요 수 출 품	: ('11) 반도체 및 전자제품, 수송장비, 의류, 구리제품
	주 요 수 입 품	: ('11) 전자제품, 연료, 기계 및 운송장비, 철강제품
	주 요 부 존 자 원	: 동, 금, 니켈, 석유, 목재
	경 제 적 강 점	: 풍부한 천연자원 및 노동력
경 제 적 약 점	: 지역간·계층간 심한 소득격차, 취약한 수출구조	

2 주요 사회·개발지표

평 균 수 명	68.5세 ('10)	1 인 당 G N I	2,060달러 ('10)
절 대 빈 곤 계 층 비 율	26.5% ('09)	1 인 당 CO ₂ 방 출 량	922kg ('08)
이 동 통신 가입 자 수 (백명당)	86명 ('10)	도 로 포 장 률	10% ('03)
인 터 넷 사 용 자 수 (백명당)	25명 ('10)	1 인 당 에 너지 소 비 량 (석유환산)	424kg ('09)

3 주요 경제지표

경 제 지 표		단 위	2008	2009	2010	2011	2012 ^f
국 내 경 제	G D P	억 달러	1,736	1,649	1,996	2,131	2,276
	1 인 당 G D P	달러	1,918	1,827	2,123	2,223	2,329
	경 제 성 장 륜	%	4.2	1.1	7.6	3.7	4.2
	산업생산증가율	%	0.3	-11.9	23.2	1.1	1.1
	국내총투자/GDP	%	19.7	19.0	20.5	19.3	19.5
	실 업 륜	%	7.4	7.5	7.3	7.0	7.0
	재 정 수 지 / G D P	%	0.0	-2.7	-2.2	-0.8	-1.9
	소비자물가상승률	%	8.2	3.2	3.8	4.8	3.4
대 외 거 래	환율 (달러당, 연중)	P	44.32	47.68	45.11	43.31	42.54
	경 상 수 지	백만 달러	3,627	9,358	8,924	5,845	2,132
	경상수지/GDP	%	2.1	5.6	4.5	2.7	0.9
	상 품 수 지	백만 달러	-12,885	-8,842	-10,966	-15,424	-16,072
	상품수지/GDP	%	-7.4	-5.4	-5.5	-7.2	-7.1
	수 출	백만 달러	48,253	37,610	50,748	47,231	51,391
	수 입	"	61,138	46,452	61,714	62,655	67,463
	서 비 스 수 지	"	1,160	2,114	2,704	3,590	4,041
	수 입 (Credit)	"	9,717	11,014	14,072	15,495	16,688
	지 급 (Debit)	"	8,557	8,900	11,368	11,905	12,647
	자 본 수 지	"	-1,641	-3,636	9,658	5,227	..
	F D I 순유입	"	1,544	1,963	1,713	800	1,000
외 채 현 황	외 환 보 유 액	"	37,551	44,243	62,373	75,303	85,325
	총 외 채 잔 액	"	65,995	63,116	72,337	72,280	68,855
	단 기 외 채	"	7,001	9,485	13,673	16,272	..
	총외채잔액/GDP	%	37.3	37.5	36.2	32.2	27.8
외채상환액/총수출	"	14.8	13.3	13.9	11.8	10.5	

4 우리나라와의 관계

외교관계수립	1949. 3. 3. 수교 (북한과는 2000. 7. 12.)
주요협정체결	항공운수협정 ('69), 문화협정 ('73), 무역협정 ('78), 경제기술협력협정 ('85), 과학및기술협력협정 ('86), 이종과세방지협약 ('86), 범죄인인도조약 ('96), 투자보장협정 ('96)

가. 양국간 무역 현황

• 연도별 수출입규모

구 분 (백만 달러)	2009	2010	2011	주요 품목
수 출	4,567	5,838	7,339	반도체, 석유제품, 강반제품
수 입	2,652	3,488	3,571	반도체, 원유, 곡실류

• 주요 수출입품목

순 위	품 목 명	수 출 (백만 달러)		순 위	품 목 명	수 입 (백만 달러)	
		2010	2011			2010	2011
1	반 도 체	1,852	1,663	1	반 도 체	1,256	1,105
2	석 유 제 품	536	1,204	2	원 유	502	629
3	강 반 제 품	79	402	3	곡 실 류	257	298

나. 양국간 직접투자 규모

구 분 (천 달러)	2009	2010	2011	누 계
한국 → 필리핀	121,719	228,001	206,229	2,598,629
필리핀 → 한국	651	328	21,290	148,125

다. EDCF 지원현황

사 업 명	승 인	승인금액 (백만 달러)
남부마닐라 통근철도사업	2003.12	35.0
라곤딩간 공항개발사업 보충용자	2004. 5	8.2
GSO 도로확장 및 긴급건설사업	2005.11	22.3
바콜로드-실라이 공항진입도로 건설사업	2008.12	13.1
GSO 도로사업(2차)	2008.12	28.4
푸에르토 프린세사 공항개선사업	2009.12	71.6
남북부연결철도 1차 사업(보충용자)	2009.12	15.3
남북부연결철도 2차 사업	2009.12	96.0
라곤딩간 공항 항법지원설비 공급사업	2010. 9	13.3
사마르 해안도로사업	2011.12	37.8
합 계*		341.0

* 2003년 이전 지원건 포함: 총 16건, 승인금액 407.1백만 달러

5 정치상황 및 국제관계

• 정치상황

- ▶ 2010년 5월 선거에서 코라손 아키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베니그노 아키노 자유당 상원의원이 부패 청산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큰 표 차로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국을 운영 중임.
- ▶ 민다나오 섬을 중심으로 이슬람 무장세력 및 공산당과 정부 간의 무력충돌발생 가능성이 존재하여 치안 불안을 야기하고 있으며, 비등록 총기 유통으로 인한 사고 및 테러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 국제관계

- ▶ 일본과 미국은 필리핀의 1, 2위 교역국이자 주요 투자국이며, 특히 일본은 필리핀의 최대 공적개발원조 공여국(필리핀 수원 총액의 50% 이상)임. 미국은 지난 40년 간 50억 달러 이상의 개발 원조를 지원해 왔으며,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미국이 필리핀에 군사원조를 제공하는 등 안보협력관계 유지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6 국내경제 및 대외거래 동향

• 국내경제

- ▶ 2011년에 아키노 정부가 재정수지 적자 축소를 위해 재정지출을 축소하고 세계 경기가 다소 둔화됨에 따라 농업 부문의 호조에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은 3.7%로 하락하였음. 2012년에는 주요 수출시장인 유럽 주요국의 재정위기로 수출 증가가 제한되어 경제성장률이 전년 대비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 2011년에 이자 지급액 감소에 따른 정부의 재정지출 축소로 재정적자의 GDP 대비 규모가 0.8%로 크게 축소되었으나, 2012년에는 정부가 인프라 투자 확대를 계획함에 따라 다시 1.9%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대외거래

- ▶ 국내 경기 회복에 따른 국내 소비 수요 증가, 전자품목 수출 증가에 따른 부품 수입 증가 등으로 수출보다 수입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남에 따라 2011년부터 상품수지 적자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 ▶ 업무처리아웃소싱(BPO) 부문과 관광업 중심의 서비스수지 흑자 및 해외근로자 송금에 따른 이전수지 흑자로 경상수지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나, 상품수지 적자 확대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